

“벌금 내면 끝”... 건설재해 처벌 ‘솜방망이’

곰품·채용 비리... 2개월 단속에 39명 입건 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김영란법 위반에 가차 해너까지

도내 건설 재해사고 매년 증가... 사망자도 ↑ 사망사고 발생해도 대다수가 벌금·집행유예 “가벼운 처벌이 안전규정 미준수 분위기 일조”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벌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일어난 건설재해는 2015년 552명, 2016년 629명, 2017년 70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15명 등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른다.

제주에서 건설재해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 관련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건설재해를 야기시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045건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건은 단 9건에 그쳤다. 대부분(3만2096건)은 재판 없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약식으로 기소됐다.

실제 지난해 1월 6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인해 한 쪽으로 기울면서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박모(59)씨가 철제 받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은 지반 침하를 막는 방지시설은 물론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대표와 펌프카 운전자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만을 선고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된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두달 만에 39명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토착비리 8건·27명,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4건·12명 등 총 3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착비리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비리가 6건, 인사·채용비리가 5건, 직무비리 16건이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이 5명, 공공유관단체 12명, 일반인 10명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

품과 향응을 받아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시청 소속 서기관 김모(58)씨와 이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

이 밖에도 해너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해너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진로비 혜택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도 사례에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의 경우 보험사기가 9건, 기타 3명이다. 신분별로는 의사 1명, 한의사 2명, 일반인 9명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보건지소 50대 여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돼

제주시 모 보건지소 소속 50대 여성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소속 직원 A(50·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12일 제주시 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진대피훈련에서 어린이들이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학교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물에 빠진 청소년 구한 20대 남녀에 감사장 수여

제주에서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조한 20대 남녀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변에서 발생한 익수자 구조에 도움을 준 이희은(30·여)씨와 한민주(31)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쯤 월정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중 인근에서 허우적거리는 익수자 이모(14)군과 심모(14)군 등 2명을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불시로 10곳 소방조사 했더니... 21건 ‘불량’

제주소방본부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방화시설 훼손·불법증축 등 무더기 적발

불시로 진행된 소방조사에서 불량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무작위로 선정된 10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21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전원·벨브 차단,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유무, 비상구 폐쇄·잠금 여부,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10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21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방화문 관리 미비, 피난·방화시설 훼손, 건축물 임의 증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21건 중 6건은 과태료, 12건은 관할 소방서 조치 명령, 건축법 위반 사항 3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

지난 11일 오후 5시23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서모(54)씨가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여중생 상반신 탈의 사진 유포 20대 집유

사진 건네받은 20대엔 벌금형

장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와 술을 마시다가 김씨에게 A양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해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용을 통해 당시 중학생인 A(14)양에게 돈을 주고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았다.

장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와 술을 마시다가 김씨에게 A양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해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용을 통해 당시 중학생인 A(14)양에게 돈을 주고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해경 “해양 순찰기 전진배치 할 것”

무안·제주 번갈아 하루씩 상주 성능 뛰어난 새 순찰기도 투입

속보-제주에 배치된 ‘해상 순찰기’가 전남 무안으로 상주 지역을 옮기면서 해상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본보 12일자 4면)가 제기된 가운데 해경이 ‘전진배치’를 통해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해양 순찰기 B702호가 오는 2019년 2월 전라남도 무안으로 재배치된다. 이는 인력과 장비 결핍을 통해 교육훈련용 항공기 확보로 조종사 조기 양성과 기량 향상 ▷안정적인 인력 운용 ▷원활한 정비·출동 태세 확립을 통한 적극적인 임무 수행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주에 상주해 있는 B702호가 무안에서 출동하게 되면 20분가량 시간이 더 소요돼 해상사고에 대한 대

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B702호는 제주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이어서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전진배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진배치가 이뤄지면 해상순찰기가 무안에만 있지 않고, 1일씩 교대로 제주와 무안에 상주하게 된다. 여기에 B702호보다 성능이 월등한 또 다른 해상 순찰기 ‘퀵리저’가 투입된다.

해경 관계자는 “B702호는 전 세계에 20대 밖에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노후화됐고, 이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에 5-6개월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무안으로 재배치가 되지만 전진배치를 통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항후 출고되는 수리온 헬기도 제주에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억울하지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빌려준 사람도 두 다리 쪽 뺏고 편히 주무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집행권원(판결문)있는 민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기타 등등..

아, 잠깐!! 저희 회사는 착수금(선불경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받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064)757-7770, FAX. 757-7769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인트 총판
- 전문건설업, 방수공사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한가위대전

그랜드보청기

제주도내 배터리 최저가 판매
25,000원 → 15,000원에 판매

다양한 행사에 참ชน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 1+1(프리미엄 모델 행사)
- 방문고객 기념품 증정
- 무료 보청기 최적화진단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보청기 A/S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뱅킹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